

이진혁, 김미진 부부

건강한 두 아이와 알콩달콩 살아요



[김미진(개그우먼), 이진혁(MBC 라디오기술부)]

콧날에 시선을 빼앗기고, 화려한 프리포즈는 없었지만 매일 매일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부부가 있습니다. 두 아이가 있어 취미생활을 같이 하는 즐거움은 없지만, 항상 해맑던 아내가 아이를 낳고 아프면서 더 아파하던 남편, 아이들이 잠들면, “오늘도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고맙다”고 기도하는 아내, 아이들이 걸음을 떼고, 엄마 아빠를 알아보고 텔레비전에 나온 엄마를 보며 웅얼대는 모습에 함박웃음이 절로 납니다. 일과 육아 속에서 힘은 들지만, 행복한 미래를 위해 결혼 3년차 부부 즐겁게 살아갑니다.



첫 교감

김미진: 라디오 스튜디오 유리창 너머로 교감이 시작됐죠. 대부분의 엔지니어가 연배가 있으신데 유독 젊은데다가 오뎅한 낫날과 흰찰한 키에 자꾸 시선이 가더라고요.

이진혁: 당연하지.(^^)

김미진: (^^) 이봐, 겸손이 안 돼. 그 당시 최양락 선배님이 진행하던 '재미있는 라디오'에 고정출연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주 보던 사이였는데, 담당 부장님이 처녀총각 있으니까 자주 엮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발끈했는데, 일주일에 3일을 창문너머로 보니까 마음이 움직이더라고요. 자주 보면서 성실하다는 생각이 들고, 같이 밥도 먹으면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런데, 무엇보다 마음에 든 건 낫날이죠. 콧대 높은 남자를 좋아하거든요.(^^)

연애시대

이진혁: 방송사 내에서 티는 안 냈지만, 연애는 꾸준히 하고 있었죠.

김미진: 그런데, 웃긴 건. 티는 안 냈어도 밖에서 함께 자주 돌아다녔는데, 아무도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이진혁: (^^) 일부 사람들이 눈치는 채고 있었지만, 물증이 없으니까 설마설마 했나 봐요.

사내커플 선배들의 조언 없이 즐겁게 연애하다가 한방에 "우리 결혼한다고" 터뜨렸죠.

프리포즈

김미진: 똥 똥 가슴 아픈 얘기 나오네. 언젠가 같이 백반을 먹으러 갔어요. 그런데, 밥 먹다가 갑자기 결혼하게 되면 이렇게 저렇게 살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살자고 생각하며 밥을 맛있게 먹었거든요. 그게 다였어요. 무릎 꿇고, 반지에 꽃다발은 구경을 못했죠. 그래도, 살아보니까 무뚝뚝한 성격이라 표현이 서툰거지 항상 유쾌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같은 직종에 종사

이진혁, 김미진: 불편하죠.

김미진: 결혼 전에는 비밀이었으니까 괜찮았는데, 지금은 불편해요.

이진혁: 왜 남자들은 동료들끼리 낚시, 등산, 자전거 하이킹 등을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와서 함께 안 간 동료한테 남편 어디 갔는지 물어보면, 어디 갔다고 대답하면 곤란하잖아요. 어딜 가지를 못해요.(^^)

김미진: 그런 거야. 일부러 안 간 게 아니군. 애들 봐야지 어딜 가.(^^)

도움이 되는 일도 많아요. 결혼하면서 남편이니까 업무 면에서 더욱 분발하고, 자리도 잘 잡았으면 하는 얘기를 자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도 제가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에 나오면 모니터를 해주는데, 처음에는 그 얘기가 듣기 싫었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하면서 다시 봤는데 남편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모니터 했더라고요. 다시 보고 들으면서 잘못된 건 고치고, 부족한 건 채우게 되더라고요.

어느덧 결혼 3주년

김미진: 2007년 3월 3일이니까.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1주년에는 근사하게 호텔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식사를 했는데, 저희가 결혼하고 바로 아이를 가졌거든요. 그러면서 아이가 태어나고 2주년부터는 집 근처에서 조용하게 보내고 있어요.

이진혁: 벌써 3년이 넘었구나.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김미진: 이번에는 남편 출장까지 겹쳐서 집 근처에서 고기를 구워먹으며 마무리했죠.

예비 신랑신부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결혼하면 일정기간 신혼생활을 즐기고 아이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결혼하고 얼마 후 아이가 생겨서 그런 면에 아쉬움이 있어요.



건강한 두 아이

김미진: 일과 육아를 같이 하는 건 정말 힘들어요. 그래도, 하루하루 아이들 커가는 모습에 웃으며 살죠. 큰 애가 딸인데 아빠를 전폭적으로

로 좋아하고, 둘째는 아들인데 저를 열렬히 사랑해

요. 남편이 가끔 늦으면 전화기에 대고 딸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귀가를 독려하죠.

이진혁: 그런데, 딸아이가 신기한 게 열심히 아빠만 따라다니다 밤이 돼서 잠이 드는데, 새벽에 깨서 울면서는 엄마만 찾아요. 아빠가 힘든 걸 아는 것 같아요.





김미진: 평상시 집에서는 성대모사를 해본 적이 없는데, 아이들을 낳고, 동화책을 읽어 주면서 그 진가가 발휘됐죠. 캐릭터를 살린 살아있는 입체 성대모사. 아이들에게는 무엇이든 지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인가 봐요. 그리고, 요즘은 말을 하기 시작해서 말을 할 때마다 무슨 말을 할까 기대돼요.

우리의 바람

이진혁: 가장으로써 아이들 항상 건강하고, 아내가 일을 좋아하는데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즐기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 여유 있게 일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김미진: 저희가 아이들 낳으면서 위험을 겪고 나니까 꿈이 아주 소박해졌어요. 지금도 항상 아이들 재워놓고 기도하는데 건강하게 성장해서 즐겁게 살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받은 사랑 다른 사람한테도 나눠줄 수 있었으면 더 좋겠어요.

남편한테 바라는 건 조금만 더 부드럽고 다정해졌으면 좋겠어요. 도시의 생활이 빠듯하고 힘들잖아요. 그러면서, 남편이 여유가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빨리 지치지 말고, 여유를 갖으면서 서로 노력하면서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어요.(^^)